

‘조두순 차지붕에서 쿵쿵’ 유튜버 처벌한다

조두순 호송차 부순 30대 유튜버 등 3명 신원 특정 이번 주 소환조사 관용차량 훼손 혐의 등 입건방침 당시 채증영상 분석해 다른 유튜버·시민 입건 예정 안산 조두순 거주지 주변 95건 소음 등 민원 접수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이 지난 12일 출소할 당시 이용한 법무부 호송차에 올라가 지붕을 파손하는 등 관용차량을 부순 유튜버와 시민들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조두순이 탑승한 호송 차량을 파손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30대 유튜버 A씨 등 3명 신원을 특정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2일 오전 경기 안산준법지원센터 앞 도로 상에서 조두순이 탄 관용차량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차량에 올라타던 A씨 등은 호송차 지붕에 올라가 발로 밟거나 앞유리창을 부수는 등 관용차량에 손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번 주 중으로 이들을 불러

조사한 뒤 형사 입건할 예정이다.

당시 해당 관용차량에는 유튜버 3명 이외에 다른 시민도 올라갔는데, 경찰은 이미 확보한 채증영상을 통해 조사 중이다. 추가로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이들에 대해서도 입건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이날까지 조두순 주거지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유튜버와 시민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20대 시민 A씨는 지난 13일 오후 9시께 조두순 주거지로 진입하기 위해 경비근무를 서고 있던 경찰관을 밀치고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방송을 보고 화가 나 대전에서 조두순에게 항의하려고 올라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전 8시 43분께 조두순이 안산준법지원센터를 떠나 주거지로 향하자 분노한 시민들이 조두순이 탄 호송 차량위에 올라타 차량을 가려하는 등 분노를 표출하자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뒤엉켜 아수라장이 펼쳐졌다.

또 12일 오후 2시 50분께 인터넷 방송 B인 20대 B씨는 다른 인터넷 방송 B가 조두순 집 앞에서 자장면을 시켜 먹는 모습을 방송에 올리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12일 조두순 출소 이후부터 14일

오전 6시까지 유튜버 등 인터넷 방송 B와 시위하는 시민들의 소음 등으로 조두순 거주지 일대에서 접수된 민원은 총 95건에 달한다.

경찰 관계자는 “과도한 언행으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엄격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봉우기자

위조 번호판 달고 차량 운행한 50대, 징역 4개월

과태료 체납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되자 번호판을 위조해 차량에 부착·운행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부착한 뒤 차량을 운행한 혐의(공기호위조·위조공기호행사)로 기소된 A(52)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0일 오후 5시께 광주 광산구 모 아파트 상아 앞 도로에서 유성 매직으로 종이에 자신의 차 번호를 적어 붙이는 방법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한 혐의다.

A씨는 지난 6월 21일 오후 7시께 위조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차량에 부착·운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승용차 앞쪽 등록번호판이 과태료 체납으로 영치되자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A씨가 제작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은 정교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실제 자동차 등록번호판과 모양·크기·글자의 배열 등이 유사하다. 일반인들이 진정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으로 오신하게 할 여려가 있다고 보여 위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장은 “법령 동기에 비취 죄질이 불량하다. 공기호위조·위조공기호행사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위조 번호판을 부착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여중업원 추행·보복협박 50대 편의점주, 2심서 감형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 창고에서 여성 종업원을 추행하고, 고소를 취하하라며 해당 종업원을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김태호·황의동·김진환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편의점주 B(57)씨에 대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등록 기간 10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5월 31일 오전 10시와 오후 10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 창고에서 두 차례에 걸쳐 40대 여성 종업원 B씨의 신체 일부를 추행한 혐의다.

A씨는 강제추행과 관련, B씨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자 이를 취하하며 B씨를 협박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이 사건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으며, B씨는 해당 편의점에서 두 달간 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법령의 동기·경위·수법 등에 비춰 A씨의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심한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이 범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 합의했다.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A씨의 전과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내 동생 왜 괴롭혀” 훈계 중 서로 때린 20대들 입건

광주 서부경찰서는 14일 대화 도중 시비가 붙어 서로를 때린 혐의(폭행)로 A(29)씨와 B(26)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시께 광주 서구 쌍촌동 주택에서 빵을 밀거나 빈 병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서로 폭력을 주고받은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동생과 친구 사이인 B씨를 불러 내 “동생을 괴롭혀지 말라”며 훈계하다, 먼저 손으로 빵을 수차례 던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화해 B씨도 주변에 놓여있던 빈 소주병으로 A씨 머리를 1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병이 깨지지 않았고, A씨가 특별한 외상이 없는 점 등으로 미뤄 B씨에 대해 폭행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

기아차 노조 ‘4차 파업’...잔업 복원 놓고 ‘강대강’ 대치

노조 “잔업 30분 복원 시까지 파업 강도 높여나갈 것”

사측 “잔업 복원 수용시 다른 복지혜택 축소 불가피”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이 교섭 결렬을 이유로 ‘4차 부분파업’을 실행에 옮긴 가운데 임금단체협상 쟁점 사항을 사측이 수용할 때까지 파업의 강도를 높여나갈 태세다.

14일 기아차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11일 쟁의대책위원회 결정대로 오는 18일까지 5일간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이번 부분파업도 광주공장을 비롯해 경기 광명 소하리, 화성공장 전체 사업장에서 진행된다.

14~17일 나흘간은 매일 1·2조(주·야간) 각 4시간씩 하루 총 8시간 퇴근파업을 진행한다. 금요일인 18일은 1·2조 각 6시간씩 파업을 벌인다.

단 파업 기간 중 사측과 교섭이 이뤄질 경우 부분파업 시간을 2시간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지난 8월부터 4개월째 집단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계속되는 파업은 최대 쟁점인 ‘잔업 30분 복원’을 놓고 노사 간 극명한 입장 차이로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데 있다.

노조는 ‘잔업 30분 복원’을 통해 실질적인 임금 보전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잔업 복원 시 ‘퇴직자 차량 구입비 지원 축소’ 등 다른 복지혜택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가 줄기차게 요구하는 잔업 복원은 관련 수당이 통상임금의 150%가 지급된다는 점에서 임금 인

상과 직결되기 때문에 사측이 쉽게 수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노조는 현대자동차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잔업 30분 복원’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인어서 강경 투쟁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아차 노조 광주공장 지회의 경우 사측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 현대차가 광주시와 지역 상생형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 중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에 대한 생산기술 지원 중단까지 선언했다.

앞서 기아차 노조는 지난달 24일 진행된 제14차 본교섭에서 사측과 ‘30분 잔업’ 복원과 관련해 입장 차이를 좁이지 못해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지난달 25~27일 사흘간 매일 주·야간 4시간씩 1차 부분파업을 실시했다.

노조는 사측을 압박하기 위해 지



난 1·2·4일 사흘간 2차 부분파업을 강행한데 이어 15차 교섭이 결렬되자 9~11일에도 3차 부분파업을 이어갔다.

기아차 노조는 올해 임금단체협상에서 ‘30분 잔업 복원’, ‘기본급 12만원 인상’, ‘영업이익의 30% 성과급 배분’, ‘정년 60세에서 65세 연장’, ‘통상임금 확대 적용’, ‘노동 이사회 도입’, ‘전기·수소차 모듈 부품 공장 사내유치’ 등을 제시했다.

기아차는 노조의 잇따른 1~3차 부분파업으로 현재까지 3만여대에 달하는 생산 손실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김미희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